

19~20세기 왕실 연향의궤 도식의 도자 구성과 특징

신혜경*, 박수정**

목차

- I. 머리말
- II. 19-20세기 왕실 연향의궤 도식(圖式)의 구성과 특징
 - 1. 연향의궤 도식의 등장과 도자 도설 체제
 - 2. 도식에 나타난 도자의 구성과 종류
- III. 도식으로 살펴 본 왕실 연향의 중국 도자 사용과 변용
- IV. 맺음말

국문초록 | 본 논문은 19~20세기 왕실 연향의궤 도식에 나타난 도자의 구성과 특징을 분석한 연구이다. 1795년 『원행음묘정리의궤』부터 1902년까지 13건의 연향의궤 도식을 검토한 결과, 연향용 도자는 주기(酒器)와 화기(花器)로 구분되며 일정한 사용 체제를 구축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주기는 1827년 『자경전진작정례의궤』를 기점으로 용존(龍樽)과 백자존(白磁樽)으로 세분화되어 신분에 따라 차등 배치되었다. 화기는 1828년 이후 중국풍 당화존(唐畫樽)이 등장하며 사용이 확대되었다. 특히 1848년 『헌종무신진찬의궤』부터는 중국 진심병(轉心瓶)으로 추정되는 특수한 기종이 모란화존이 정재용 화기로 채택되었다. 살펴본바 도식과 기록, 연향도병 간의 불일치 현상은 의궤 제작의 관습적 관행과 선택적 계승이 공존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고종 대 연향에서는 전통 계승과 황제권 강화라는 이중적 목적이

* 申惠卿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박사과정 shk7911@naver.com

** 朴守正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박사과정 ps00312@naver.com

투고일: 2025. 10. 28. 심사완료일: 2025. 12. 11. 게재확정일: 2026. 1. 12.

DOI URL: <http://dx.doi.org/10.17792/kcs.2025.49..103>

반영되었다. 연향의례 도식에 정리된 도지는 하나의 궤범으로 정립되어 조선 왕실의 전통 이례 대한제국기까지 지속되었으며, 이는 왕실 연향에서 도자가 중요한 위치를 점유했음을 의미한다.

핵심어 | 조선시대, 왕실 연향, 연향의례, 도자, 도식, 중국 도자, 도설, 화준, 용준

I. 머리말

‘연향(宴享)’은 국가와 왕실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베풀어진 잔치다. 왕실 가례(嘉禮) 의식과 함께 치러졌으며, 그 목적에 따라 회례연(會禮宴), 양로연(養老宴), 진연(進宴), 사객연(使客宴)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남성이 주빈(主賓)이면 외연(外宴), 여성이 주빈일 때 내연(內宴)으로 나뉘었다.¹⁾ 그러나 조선후기에 들어서 정기적으로 베푸는 회례연, 양로연은 사라지고 진연만 주로 행해졌다.²⁾ 진연은 그 규모에 따라 풍정(豊呈), 진찬(進饌), 진연(進宴), 진작(進爵) 등 명칭을 달리했다.³⁾

현재 궁중 연향을 기록한 의례는 현재 19건이 전해지며, 그중 13건에 「도식(圖式)」이 포함되어 있다. 연향의례 속 도식의 등장은 1795년(정조 19) 혜경궁 홍씨(惠慶宮洪氏, 1735~1815)의 회갑연을 기록한 『원행을묘정리의

1) 지두환, 「朝鮮後期 進宴 儀禮의 變遷-仁祖代에서 高宗代까지」, 『조선후기 궁중연향문화 2』, 민속원, 2005, 14-68쪽.

2) 국립고궁박물관, 『조선 궁중의 잔치, 연향』, 글항아리, 2013, 25-27쪽.

3) 進豊呈은 조선초기 ‘연향을 올리다’ 또는 ‘격식 없는 연향’을 뜻하다가 성종 대 이후 성대한 연향을 의미했다. 進宴은 성종 대 일반적 의미로 쓰이다 효종 대부터 진풍정보다 작은 규모의 연향을 뜻했다. 進饌은 영조 대 왕의 장수 경축을 위한 조출한 음식상을 지칭하다가 순조 대 진연보다 작은 연향을 의미했다. 進爵은 순조 대 등장한 용어로 진연·진찬보다 작은 규모를 뜻한다. 다만 조선후기에는 명칭에 따른 규모 기준이 모호해지는 경향이 있다. 김종수, 『조선시대 궁중연향과 여악연구』, 민속원, 2001, 43-103쪽.

궤(園幸乙卯整理儀軌)』(이하 정리의궤)부터이다. 연향의 핵심 요소인 음식상, 정재(呈才)와 음악에 주목하여 채화(綵花), 기용(器用), 정재(呈才), 의장(儀仗), 복식(服飾) 등의 모습을 수록한 것이다. 그중 이 논문에서 살펴볼 도자는 채화, 기용, 정재, 그리고 연향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⁴⁾

도식의 등장과 정착은 『정리의궤』(1795)를 기점으로 19세기를 거쳐 20세기까지 지속되었다. 즉, 이 시기 ‘도식’이라는 체제의 등장은 단순히 이해를 돕는 기록에서 나아가 하나의 규범으로 정착했음을 의미하는 바이다. 살펴본 결과 도식으로 수록된 도자는 크게 주기(酒器), 화기(花器)라는 역할로 나뉘었다. 각 연향의 참석자 규모에 따라 수량이 달라졌고, 1828년(순조 28) 무자년(戊子年) 진작을 기점으로 도자 사용이 확장되기도 했다. 나아가 연향에서 사용된 도자의 구성과 역할은 고종 때까지 유지되는 경향이 확인된다.

이는 궁중 연향용 도자가 일종의 사용 체제를 구축하였고, 이는 하나의 궤범인 ‘도식’으로 정립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왕실 연향에서 사용되는 도자는 도식에 수록된 것 외에 음식상에 올라가는 다종다양한 그릇들도 포함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도자의 쓰임이 하나의 궤범로 자리한 것은, 이들이 특수한 성격과 의미를 지닌 기물임을 말해준다.

그러나 궁중 연향에서 사용된 도자는 고급 기물로만 주목되거나 도식과 유물을 매치하여 용례를 정리하는 것에만 그쳤다. 더불어 이는 일부 사례만 분석한 것으로, 거시적 관점에서 연향용 도자가 갖는 흐름과 의의는 주목하지 못하였다. 또한 의궤가 전범(典範)을 관습적으로 차용해 제작하는 특징을 간과한 탓에 기록과 도식이 일치하지 않는 오류를 도출하기도 했다. 이에

4)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의궤는 19~20세기에 한정된 의궤이다. 다만, 도식의 등장과 정착이라는 관점에서 그 시작점을 『정리의궤』(1795)로 설정하고 서술하고자 한다. 물론 『정리의궤』를 포함하여 18~20세기라는 시기를 설정해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겠으나, 18세기로 편년되어 분석할 수 있는 대상은 『정리의궤』 1건 뿐이다. 따라서 18세기를 『정리의궤』가 대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분석의 대상으로는 배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궁중 연향의궤 도식에 나타난 도자를 분석하고 그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의궤 기록, 도식, 궁중 연향도병(宴享圖屏)을 통해 연향도자의 구성 체제에 대한 다각적 검토를 시도할 것이다. 따라서 연향에서 사용된 도자에 대한 이해와 성격, 나아가 도자 도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

Ⅱ. 19~20세기 왕실 연향의궤 도식(圖式)의 구성과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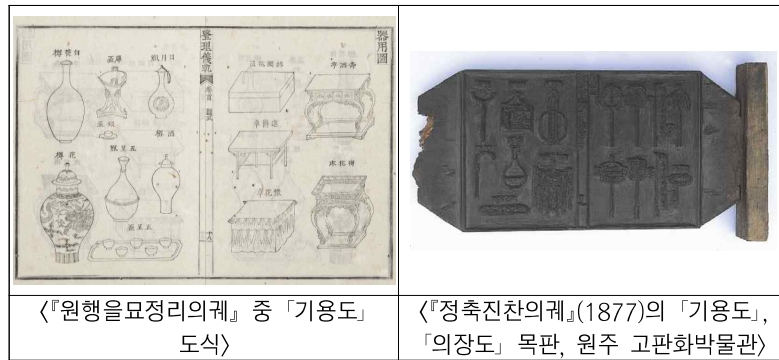
1. 연향의궤 도식의 등장과 도자 도설 체제

[부록1] 상술한 바와 같이 조선 왕실의 연향을 기록한 의궤는 현재 19종이 전해지고 있다. 이 중 19~20세기에 간행된 의궤는 총 14건이며, 그 중 대한제국 시기인 1901년, 1902년에는 4건의 연향의궤가 편찬되었다. 의궤는 편찬 방식에 따라 필사본과 활자본으로 나누어지는데, 1795년 간행된 『정리의궤』를 기점으로 그 체제에 변화가 나타났다. 『정리의궤』는 금속활자인 정리자(整理字)를 주조하여 그 내용을 인쇄한 것으로, 이후 연향의궤는 활자본으로 인쇄하여 보급하는 방식으로 정착하게 되었다.⁵⁾ 이러한 방식은 대한제국 시기 편찬된 의궤에까지 적용되고 있어 『정리의궤』가 연향의궤의 전범으로 자리했음을 알 수 있다.

『정리의궤』(1795)의 간행은 이후 편찬된 의궤 간행 방식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 체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제별 항목으로 나누어 편집하는 유취(類聚) 체제로 편집되었고, 크게 권수(卷首), 본문(本文), 부편(附編)으로 구성된다(표 1). 그중 권수에는 행사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도식’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도식이라는 별도의 항목을 고안하여 배치한 것이다. 이

5) 국립고궁박물관, 앞의 책, 2013, 57-58쪽.

도식은 행사 장면과 연향에서 사용된 기물, 복식, 악기 등에 관한 것으로, 목판으로 한꺼번에 조각한 뒤 인출(印出)하였다.⁶⁾ 더불어 도식의 배치는 행사와 행차로 나누고 순서대로 배열한 뒤 사용한 물건과 복식, 공연에 대한 도설을 뒤이어 편집하였다.⁷⁾ 한편 이와 같은 도식 편집 체제는 국가 전례서의 「도설(圖說)」 체제를 차용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표 1】 왕실 연향의궤에 나타난 「기용도(器用圖)」 도식과 목판

국가 전례서는 의례의 규범을 정리하고 올바른 실천과 이해를 돕기 위해 기물[제기 등], 단묘(檀廟), 제복(祭服) 등을 「도설」이라는 별도의 구성으로 수록하였다. 그 시작은 『세종실록(世宗實錄)』, 「오례(五禮)」(1454)부터 확인되며, 고종 대 『대한예전(大韓禮典)』에 이르기까지 변하지 않는 편찬 체제였다. 본래 의례는 의식에 사용된 물건을 담당 부서별로 나누고, 본문 중간에

6) 김정임,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의궤 도식 목판」, 『고궁문화』 2, 국립고궁박물관, 2008.
 7) 『원행을묘정리의궤(園幸乙卯整理儀軌)』(1795)는 기존 의궤 관행을 따르지 않고 특별한 체제로 편찬되었다. 관리자를 위한 실무적 기능 뿐 아니라 참석자에게 행사의 목적을 전파하고 오래 기억하기 위한 의도로 편집한 것이다. 유재빈, 『『園幸乙卯整理儀軌』圖式, 그림으로 전하는 효과와 전략』, 『규장각』 5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8, 187-188쪽.

마치 삽화와 같이 의식에 필요한 기물들을 필사로 그려 넣어 제작하였다.⁸⁾ 그러나 『제기악기도감의궤(祭器樂器都監儀軌)』(1624)를 기점으로 기물을 한데 모은 「도설」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후 『종묘의궤(宗廟儀軌)』(1697), 『사직서의궤(社稷署儀軌)』(1783) 등으로 계승되어, 의궤에서도 그 체제가 정착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도설」을 독립적으로 구성하는 양식은 전례서, 의궤의 공통된 기록 체제가 되었고, 이후 『정리의궤』(1795)를 시작으로 연향의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⁹⁾ 한편, 19~20세기에 제작된 14건의 연향의궤 중 『[고종계유]진작의궤([高宗癸酉]進爵儀軌)』(1873)은 현재 卷二만 남은 영본(零本)으로 1권 1책으로 남아있어, 도식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를 제외한 총 13건의 의궤를 살펴본 바, 도식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표 2). 그 내용은 9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고, 행사의 장면을 기록한 도식(표 2-1~3), 그리고 연향에 소용된 기물을 정리한 도식으로 나눌 수 있다(표 2-4~9). 이 중 진찬도, 정제도, 채화도, 기용도, 악기도에서 도자가 도식으로 수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각도, 진찬도의 경우 연향에서 도자가 사용된 모습을, 채화도, 기용도, 악기도는 사용할 도자의 형태와 명칭, 용도를 함께 기입하였다.

8) 유재빈, 위의 논문, 2018, 201쪽.

9) 구혜인, 「조선후기 왕실 연향용 주기(酒器)의 종류와 운용체계 -의궤의 기용도(器用圖)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40,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21, 134-135쪽.

연번	내용	도자 등장 유무	연번	내용	도자 등장 유무
1	문자 반차도(班次圖)		6	기용도(器用圖)	○
2	전각도(殿閣圖)		7	의장도(儀仗圖)	
3	진찬도(進饌圖)	○	8	악기도(樂器圖)	○
4	정재도(呈才圖)	○	9	복식도(服飾圖)	
5	채화도(綵花圖)	○			

【표 2】 19~20세기 궁중 연향의궤 도식과 도자 등장 유무

한편, 도식에 표현된 도자는 실제 기물을 보고 목판에 새겨낸 것으로 생각되나, 고종 대에 접어들어 도자의 문양이 점차 간략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했다. 다만 연향의궤 도식에서 나타난 도자는 채색하지 않았고, 기물만을 단독으로 그려내 실제 쓰임과 수량 등에 대해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이에 따라 의궤 본문 중 「배설(排設)」과 연향도명을 참고하여, 그 내용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화성원행의궤도(園幸整理儀軌圖)』(1796), 『기사진표리진찬의궤(己巳進表裏進饌儀軌)』(1809)는 당시 실제 사용된 기물의 모습을 충실히 반영하여 채색으로 제작되었다. 이를 통해 당대 기물의 실제 사용례와 구체적인 형태, 색상 등을 생생하게 파악할 수 있다(그림 1).¹⁰⁾ 특히 상기 2건의 자료는 실제 기물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뿐만 아니라, 채색의 가미로 인해 그 문양과 재질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가능한 중요한 자료이다.

한편 19~20세기 궁중 연향의궤 도식에 나타난 도자는 그 성격에 따라 주기(酒器), 화기(花器)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들은 주칠(朱漆) 또는 황칠(黃

10) 서한석 역주·김중수 감수, 『역주 기사진표리진찬의궤』(국립국악원, 2018), p.39.



【그림 1】 화성원행의궤도 중 일부, 국립중앙박물관

을 한 가구와 함께 사용되었고, 그 종류와 수량은 신분에 따라 달랐음을 알 수 있었다. 도식으로 정리된 항목이 연향의 핵심 요소이고, 도자가 배치된 자리를 고려하면, 이 도자들은 연향 내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어 왕실에서 내하(內下)한 품목도 확인되며, 음식상에 배설된 도자 식기(食器)는 도식으로 수록되지 않은 점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19~20세기 연향의궤 도식에 수록된 도자는 시기에 따라 조형이 변화하거나, 새로운 기종이 추가되기도 했다. 따라서 도식 속 도자를 분석하는 것은 용례를 살펴보는 것에서 나아가 궁중 연향의 궤범으로 정리된 도자의 체제와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2. 도식에 나타난 도자의 구성과 종류

고종 때까지 설행된 연향에서 사용된 도자를 파악하기 위해 도식, 의궤 기록, 연향도병을 참고해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결과 연향의궤용 도자는 크게 주기, 화기로 나뉘었고,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부록 1), (부록 2).

1) 주기(酒器)

궁중 연향에서 사용된 도자 주기는 술잔에 술을 옮겨 담기 전에 술을

담아 놓는 술 항아리로 사용되었다. 도식과 기록, 연향도병을 통해 정리한 결과 용준(龍樽)과 백자준(白磁樽)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표 3).

연번	서명(연도)	도식	기록	연향도병
1	『己巳進表裏進饌儀軌』(1809)	白磁樽	酒樽	연향도병 없음
2	『慈慶殿進爵整禮儀軌』(1827)	龍樽	龍樽/沙樽	연향도병 없음
3	『純祖戊子進爵儀軌』(1828)	龍樽	龍樽蓋具/砂樽蓋具	연향도병 없음
4	『純祖己丑進饌儀軌』(1829)	龍樽	龍樽蓋具/沙樽蓋具	龍樽蓋具/沙樽蓋具
5	『憲宗戊申進饌儀軌』(1848)	龍樽	龍樽蓋具/沙樽蓋具	△沙樽蓋具
6	『高宗戊辰進饌儀軌』(1868)	龍樽	龍樽蓋具/砂樽蓋具	△砂樽蓋具
7	『高宗丁丑進饌儀軌』(1877)	龍樽	龍樽蓋具/砂樽蓋具	연향도병 없음
8	『高宗丁亥進饌儀軌』(1887)	龍樽	龍樽蓋具/砂樽蓋具	△砂樽蓋具
9	『高宗壬辰進饌儀軌』(1892)	龍樽	龍樽蓋具/砂樽蓋具	△砂樽蓋具
10	『辛丑進饌儀軌』(1901)	龍樽	龍樽蓋具/砂樽蓋具	△砂樽蓋具
11	『辛丑進宴儀軌』(1901)	龍樽	龍樽蓋具/砂樽蓋具	△砂樽蓋具
12	『壬寅四月進宴儀軌』(1902)	龍樽	龍樽蓋具/沙樽蓋具	樽[흑색 채색]
13	『壬寅十一月進宴儀軌』(1902)	龍樽	龍樽蓋具/沙樽蓋具	樽[흑색 채색]

【표 3】 19~20세기 궁중 연향의례 기록별 주기(酒器) 사용 △단일 표현

이들 조형을 살펴보면 S자형 동체에 연봉형 손잡이가 달린 뚜껑과 1조를 이루고, 문양의 유무에 따라 명칭을 달리했다(표 4). 용준은 주빈과 국왕, 왕세자, 왕세자빈 이상 사용한 주기로, 수주정(壽酒亭), 주정(酒亭)과 함께 배설하였다. 이때 술상에 용준을 두기 위해 준대(樽臺) 1좌가 함께 설치되었다. 백자준은 보통 공주와 내외빈 이하에게 주정, 주탁(酒卓)에 마련되었다. 기물이 배설된 수량은 각 연향 참여자 숫자에 따라 달라졌고, 이는 고종

대까지 지속되었다. 이 같은 주기 사용 체제는 순조 대 『자경전진작정례의궤(慈慶殿進爵整禮儀軌)』(1827)를 기점으로 정립된 것으로 보인다.

도자 주기가 도식으로 확인되는 가장 이른 예는 『정리의궤』(1795)의 ‘주준(酒樽)’이란 명칭의 백자준이다. 이는 『기사진표리진찬의궤』(1809), 『자경전진작정례의궤』(1827)에 동일하게 주준(酒樽)이 수록되었다. 그러나 『[순조무자]진작의궤([純祖戊子]進爵儀軌)』(1828), 『[순조기축]진찬의궤([純祖己丑]進饌儀軌)』(1829)에 ‘사준(砂樽)’이란 이름으로 남겨졌고, 이후 의궤 도식에는 실리지 않고 기록만이 전해진다. 백자준이 연향의궤 도식에서 사라진 것은 『자경전진작정례의궤』(1827)부터 신분에 따른 주기 사용이 세분되면서 그 중요도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원행음표 정리의궤』(1759)	『기사진표리진찬의궤』(1809)	『자경전진작정례의궤』(1827)		『무자진작의궤』(1828)		『기축진찬의궤』(1829)	
『현종무신진찬의궤』(1848)	『무진진찬의궤』(1868)	『정축진찬의궤』(1877)	『정해진찬의궤』(1887)	『임진진찬의궤』(1892)	『신축진찬의궤』(1901)	『임인사월진연의궤』(1902)	『임인십일월진연의궤』(1902)





【표 4】 19~20세기 궁중 연향의궤 기록별 주기(酒器) 도식

『정리의궤』(1795), 『기사진표리진찬의궤』(1809)를 살펴보면 이 두 연향의 주빈은 혜경궁 홍씨이다. 당시 의궤 기록을 참고하면, 주빈부터 의빈·척신까지 ‘주준(酒樽)’이란 명칭의 기물이 동일하게 배설된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참여자 구분 없이 백자준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혜경궁 홍씨의 세자빈이라는 지위적 한계에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¹¹⁾ 다만 『기사진표리진찬의궤』(1809)를 통해 동일한 준을 사용했지만, 신분별 위치를 두기 위해 수주정, 주정, 주탁으로 차등을 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자경전진작정례의궤』(1827)부터 새로운 주기인 ‘용준(龍樽)’이 등장했는데, 이 시기부터 연향에서 사용된 도자제 주기는 용준-백자준이라는 두 체제로 분화된 것이다.

용준은 도식과 기록을 참고하면 백자청화용준(白磁靑畵龍樽)임을 알 수 있다. 용준이 연향의례 도식으로 정리된 시점은 『자경전진작정례의궤』(1827)이나, 용준은 그 이전부터 왕실 의례용 주기로 사용되었다. 왕실 의례에서 백자청화용준이 주기로 사용된 것은 『세종실록』, 「오례」, 가례조(嘉禮條) 「준작도설(尊爵圖說)」에서 ‘白磁靑華酒海’를 참고할 수 있다. 이후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例)』(1474) 가례용,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1758)에서 흥례용으로 수록되면서 사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었다. 백자청화용준은 국가 전례서를 통해 가례, 길례, 흥례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연향의 경우 1719년 숙종 기로소(耆老所) 입소를 기념한 《기해기사계첩(己亥耆社契帖)》, <경현당석연도>부터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표 5).¹²⁾

11) 김선희, 「화성행궁華城行宮 소장 기물器物과 비품備品 연구」, 『古宮文化』 8, 국립고궁박물관, 2015, 84-85쪽.

12) 신승인, 「朝鮮後期 王室 宴享 白磁 花樽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68-70쪽.

『세종실록』, 「오례」 (1454)	『국조오례의서례』 (1474)	『국조상례보편』 (1758)	<경현당석연도>
			

【표 5】 국가 전례서와 의궤로 살펴 본 백자청화용준의 사용

한편, 용준이 배치된 상황을 살펴보면 각 참여자 당 1개가 배설되었고, 연향마다 수량을 달리했다. 또한 정조 대 혜경궁 홍씨의 진연에 배설된 백자준은 내하이내[內下品], 이후 용준은 고종 때까지 사옹원(司饗院)에서 수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대한제국기에 황제국의 위상에 걸맞은 의장과 황칠을 사용했으나, 황제의 술 항아리는 여전히 용준이 채택되었다.¹³⁾ 따라서 용준은 전통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이 사용하는 주기이면서, 그 위계를 반영한 기물임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은 용준의 위계가 연향도병 표현에도 영향을 준 점이다. 용준의 사용은 도식과 의궤 기록에서 확인되지만, 연향도병에 직접 그려지는 것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기축진찬도병》(1828)이 유일하다.¹⁴⁾

13) [부록 2]의 『신축]진연의궤』(1901) 경운궁 함녕전 내진찬, 『임인사월]진연의궤』(1902) 경운궁 함녕전 내진찬·야연, 『임인십일월]진연의궤』(1902) 경운궁 관명전 내진연·야연의 어좌(御座)·예좌(睿座) 배설에서 주기 사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주정(壽酒亭)·주정(酒亭)에 작(勺) 배설 기록과 용준 도식이 존재하므로, 용준이 생략된 것이 아닌 기록 누락으로 추정된다. 이아름, 「대한제국 궁중연향의 진작 기물 연구」, 『장서각』 48, 한국학중앙연구원, 2022, 272쪽.

14) 《기축진찬도병》(1828)은 국립중앙박물관에 2좌가 전하고, 리움미술관에 1좌가 소장되어 있다. 용준 사용이 확인되는 폭은 제5첩 <자경전 내진찬도> 부분이다. 그

이상 궁중 연향에서 사용된 주기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정조 대 혜경궁 홍씨에 관한 연향에는 주빈의 지위적 한계로 인해 백자준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1827년 순조 대 『자경전진작정례의궤』를 기점으로 ‘용준(龍樽)-백자준(白磁樽)’으로 주기가 세분화 되었다. 이때 주기뿐 아니라 기물을 배치하는 보조기물에도 함께 차이를 두었다. 물론 연향에서 사용된 용준의 등장 시점을 이 시기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 그러나 1828년 『[순조무자]진작의궤』 도식에서 백자준이 사라진 것은 적어도 이 시점부터 용준을 사용하는 체제가 정리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화기(花器)

화기는 연향이 개최되는 전각 중앙에 좌우 1쌍이 배치하여 공간을 장식하였다.¹⁵⁾ 내부에 쌀을 채워 넣고 가화(假花)를 꽂았으며, 「채화도」를 통해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¹⁶⁾ 도식에는 ‘꽃을 꽂아 놓은 모습’이라는 뜻으로

중 국립중앙박물관 덕수1665과 리움미술관 소장본은 백자준, 근대230은 용준이 표현된 점이 특징이다. 박정혜, 『조선시대 궁중기록화, 옛 그림에 담긴 조선 왕실의 특별한 순간들』, 혜화1117, 2024, 604-610쪽; 용준을 사용하는 인물이 국왕, 왕세자, 주빈 등 신분이 높은 인물이므로, 왕실 기록화에서 고위 인물을 직접 표현하지 않는 관례에 따라 용준 역시 표현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 시기부터 용준을 표현하기 시작한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15) 왕실 연향에서 화기 배치는 시기에 따라 변화했다. 1827년 자경전 진작에서는 왕세자빈·의빈·척신 공간에 배설되었으나, 1829년 기축년 진찬부터 정전 앞으로 이동해 대한제국기까지 고정되었다. 송인희(2021)는 화기가 고종 요소가 아니어서 위치 변경이 가능했으며, 1848년 용준이 당화준으로 대체된 것도 화기의 가변적 성격 때문으로 보았다. 송인희, 「1848년 진찬의궤의 당화준(唐畫樽) 사용의 의의」, 『한국문화연구』 40,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21, 55-56쪽.

16) 신승인(2012)은 화기를 정전 앞 화준 2쌍, 지당판(池塘板) 위 화병(花瓶), 정재용 화병 등 3종류로 정리했다. 지당판 위에는 ‘호로병(葫蘆瓶)’ 8개가 올라가며 도식에는 가요(哥窯)산 자기나 당초문 화병으로 보이나, 송인희(2021)는 목기(木器)에 채색한 것으로 보았다. 『[현종무신]진찬의궤』(1848)까지 목기로 제작되다가 이후 잉용(仍

‘준화(樽花)’라는 내용을 덧붙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준(樽)’이 바로 화기이다. 우선 ‘화준(花樽)’은 앞선 주기와 같은 백자청화용준으로, 뚜껑은 제외하고 본체만 사용하였다.¹⁷⁾ 다음 중국풍의 당화준(唐畫樽)으로, 구연과 굽이 외반했고, 마치 고동기 고(觚)와 같은 조형을 띠고 있다. 이들은 기물의 조형뿐만 아니라 연향에 수급된 상황에도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었다.

연번	서명(연도)	도식	기록	연향도병
1	『己巳進表裏進饌儀軌』(1809)	龍樽	龍樽	없음
2	『慈慶殿進爵整禮儀軌』(1827)	龍樽	龍樽	없음
3	『[純祖戊子]進饌儀軌』(1828)	없음	없음	없음
4	『[純祖己丑]進饌儀軌』(1829)	龍樽	龍樽蓋具	◎龍樽
5	『[憲宗戊申]進饌儀軌』(1848)	唐畫樽	唐畫樽	◎唐畫樽
6	『[高宗戊辰]進饌儀軌』(1868)	唐畫樽	唐畫樽	◆花樽
7	『[高宗丁丑]進饌儀軌』(1877)	唐畫樽	唐畫樽	없음
8	『[高宗丁亥]進饌儀軌』(1887)	唐畫樽	唐畫樽	唐畫樽
9	『[高宗壬辰]進饌儀軌』(1892)	龍樽	唐畫樽	◎唐畫樽

用) 또는 구입해 사용했으므로, 본고에서는 지당관의 화병을 도자에서 제외한다.
 17) 신승인(2012)은 주기, 화기로 사용된 용준은 서로 구분되었고, 그 이유는 사료에서 이를 구별해 기록했고, 일부 유물은 주기보다 화기에 적합한 요소(높은 구연)을 갖췄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용도별 제작은 비효율적이고 화기는 재사용 가능하므로 동일한 용준을 상황에 따라 주기 또는 화기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혜인(2023)은 백자청화용준이 주로 국혼(國婚)용으로 제작되어 의례 후 연향의 화기, 주기로 전용되었다고 보았다. 구혜인, 「조선후기 왕실 국혼(國婚)용 백자용준의 조형과 성격: 영국박물관 소장 ‘傳之于金氏子孫’명 백자운룡문호를 중심으로」, 『美術史學研究』 319, 한국미술사학회, 2023, 13-19쪽.

10	『[辛丑]進饌儀軌』(1901)	龍樽	唐畫樽	◎唐畫樽
11	『[辛丑]進宴儀軌』(1901)	龍樽	唐畫樽	◎唐畫樽
12	『[壬寅四月]進宴儀軌』(1902)	龍樽	唐畫樽	◎唐畫樽
13	『[壬寅十一月]進宴儀軌』(1902)	龍樽	唐畫樽	◎唐畫樽

【표 6】 19~20세기 궁중 연향의례 기록별 화기(花器) 사용
◎도식 불일치, ◆파악 불가

우선 『순조무자]진작의례』(1828)는 연향의 검약을 강조했던 때로 화준을 마련하지 말도록 명한 내용이 확인된다.¹⁸⁾ 이후 『헌종무신]진찬의례』(憲宗 戊申 進饌儀軌』(1848)부터 용준이 아닌 당화준이 등장했다. 이때 용준이 사용원에서 마련되었던 것과 달리 당화준은 왕실에서 내하하여 사용되었다. 그러나 동일한 사용 양상과 기록이 나타났던 주기와 달리, 화기는 용례는 같았으나 도식-기록-연향도병 내 기록이 일치하지 않았다(표 6).

『원행올표정리 의례』 (1759)	『기사진표리진 찬의례』 (1809)	『자경전진작정례의례』 (1827)	『순조기축진찬 의례』 (1829)	『무신진찬 의례』 (1848)	『무진진찬 의례』 (1868)
					

18) 1828년 무자년 진작은 순원왕후(純元王后, 1789~1857)의 40세 탄일 기념 연향이다. 당시 ‘준화는 만들지 말고 상화만 마련[令曰樽花則勿爲之只床花磨鍊/令曰樽花則勿爲之只床花磨鍊而以散花爲之又]’ 하도록 했으며, ‘기명과 상매 등은 작년 것을 사용’하여 검약을 강조했다. 이의강, 『(국역)순조무자진작의례』, 보고서, 2006, 49-50쪽.

「정축진찬 의궤」 (1877)	「정해진찬 의궤」 (1887)	「임진진찬 의궤」 (1892)	「신축진찬 의궤」 (1901)	「임인사월진연 의궤」 (1902)	「임인십일월진 연의궤」 (1902)

【표 7】 19~20세기 궁중 연향의궤 기록별 화기(花器) 도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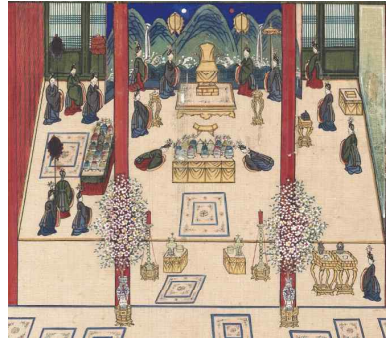
도식을 통한 화기의 사용은 [용준 → 당화준 → 용준]이란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기록-연향도병의 경우 [용준 → 당화준]으로 확인되고 있다(표 7). 특히 고종 대 진행된 연향부터 도식-기록-연향도병의 불일치가 확인되며, 기록에 차이점이 나타난 이유는 이 시기 치러진 연향의 성격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¹⁹⁾ 고종 대 설행된 연향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왕실의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 중 하나였다(표 6-10~12). 고종은 연향의 전통적 관행을 빌리되 몇 가지 요소를 취사선택해 의주(儀註)를 변용시켰다. 이는 자연스럽게 의궤 기록 관행과 연향도병 제작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고종 대 연향도병은 1828년 순조 대에 정립된 양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었다. 그러나 대한제국기 첫 연향을 그린 1901년 《신축진찬도병》에는 이전과 다른 요소가 확인된다(표 6-11). <경운당대전[고종]회작>의 장면에서 고종의 어좌를 포함한 기물이 황칠 되어 표현된 것이다. 또한 1902년 고종의 입기로소(入耆老所)를 위해 제작한 《임인사월진연도병》의 <함녕전내진연>에는 정전 앞에 1쌍의 당화준이 그려졌다(표 6-13), (그림 3). 그러나

19) 고종 대 연향의궤 도식-의궤 기록-연향도병의 회화적 차이점은 첫째 의궤 도식과 기록-연향도병에서 기종이 다르게 표현된 점, 둘째 연향도병 이본(異本)에서 기물 문양 등 세부 표현이 다른 점이다.

이 당화준은 각각 당초문, 박쥐문을 시문한 서로 다른 문양을 배치한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장면에서 당초문이 시문된 당화준을 1쌍으로 그린 것과 비교할 수 있는데, 이는 선택적 취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²⁰⁾

이를 종합하면 고종 대 연향은 전통과 변용이라는 다층적 성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연향의 기록물인 의궤 도식과 연향도병은 전통의 계승과 선택적 차용이라는 두 가지 형태가 공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의궤 기록의 경우 왕실의 전통으로 여겨지는 전례를 따랐고, 연향도병은 관행을 따르되 황제권이 내포된 요소를 가미한 것이다. 이는 『고종임진진찬의궤(高宗壬辰進饌儀軌)』(1892)부터 『임인십일월진연의궤(壬寅十一月進宴儀軌)』(1902)까지 도식-연향도병에서 용준-당화준이라는 기록 양상이 지속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림 3】 《임인사월진연도병》의 〈함녕전내진연〉에 나타난 황칠 기물과 당화준 세부, 국립국악원

이상 고종 대 연향과 기록물의 특징을 참고하면, 이 시기에 사용된 화기는 당화준으로 추정된다. 더불어 후술할 정재용 화기 또한 당화준이 채택되어 꾸준히 사용된 점을 통해, 19세기 후반 연향에서 당화기의 사용이 보편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화준용 용준이 당화준으로 대체되면서, 용준은 주기라는 성격이 더 강화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화준과 달리 20세기까지

20) 기로소 입소가 황권 강화였다는 점에서 내진연은 다른 진연과 차별화되었으며, 고종이 직접 장례원(掌禮院)에 연향도병 제작은 명한 점을 생각하면 해당 장면에 의도적으로 다른 기물을 배치했을 가능성이 있다. 서예진, 「高宗代(1863~1907) 宮中宴享圖屏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74-79쪽.

큰 변화 없이 동일한 기록으로 전해졌던 상황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IV. 도식으로 살펴 본 왕실 연향의 중국 도자 사용과 변용

지금까지 왕실 연향의례 도식에 나타난 도자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연향의례 도식으로 수록된 도자는 역할에 따라 크게 주기와 화기로 분류되며, 이러한 분류 방식은 장기간에 걸쳐 일관되게 유지된 것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정제와 관련된 기물 가운데 중국풍 당화준으로 추정되는 도자가 진찬도·악기도·정제도에 다양한 양식으로 나타난다. 이는 1828년 연향부터 정제가 새롭게 추가되고 확대되면서, 정제도구 또한 다양해지는 추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부록 2). 특히 침향춘(沈香春), 헌천화(獻天花), 가인전목단(佳人剪牡丹) 등 새롭게 도입된 정제의 주요 소품인 화병[花罈]들이 중국 도자 양식으로 묘사된 점은 이를 잘 보여준다(표 8).²¹⁾

현존하는 19~20세기 연향의례 도식 가운데 이전과 다른 양식의 정제용 화기는 『[순조무자]진작의례』(1828)에서 처음 확인되며, 『[순조기축]진찬의례』(1829)와 『[헌종무신]진찬의례』(1848)에서도 또 다른 양식이 등장한다. 이 같은 연향의례 도식에 새롭게 등장한 도자들은 후대에 간행된 의례들에서도 관습적으로 차용되며, 의례 도식 내에서 불일치되는 경우도 확인된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에 주목하여 연향의례의 기록과 도식, 연향도병을 바탕으로 새롭게 추가된 정제에 사용된 도자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²²⁾

21) 순조연간 궁중정제에 대해서는 국립고궁박물관, 『문예군주를 꿈꾼 왕세자, 효명』, 2019, 116-119쪽; 국립고궁박물관, 『왕실문화도감-궁중악무』, 2014, 396쪽.

22) 궁중정제에서 사용된 도자를 청대 기물과 연결 지은 논문은 다음을 참조. 김미경, 「19세기 조선백자에 보이는 청대 자기의 영향」, 『강좌미술사』 Vol. 33, 한국불교미술학회, 2009, 293-327쪽; 김은경, 「朝鮮의 淸 瑤瑯瓷器 유입경로와 수용태도

『무자진작의례』 (1828)	『무자진작의례』 (1828)	『무자진작의례』 (1828)	『기축진찬의례』 (1829)	『무신진찬의례』 (1848)
				
현천화병	(침향)화병	모란화준		

【표 8】 19~20세기 연향의례에 새롭게 등장하는 화병[화준] 도식

먼저, 『[순조무자]진작의례』(1828) 악기도를 살펴보면, 견부에 보자기를 감싼 형태의 ‘현천화병’이 확인된다. 현천화는 효명세자(孝明世子, 1809~1830)가 창작한 향악정재(鄕樂呈才) 중 하나로, 어머니 순원왕후를 위해 열린 연경당(演慶堂) 진작례(進爵禮)에서 처음 연행되었다. 이 정재는 임금께 천화(天花)를 바치며 추는 춤으로 천화를 꽃은 화병을 탁자 위에 두고 진행되었는데, 현천화병은 도식에서 보자기로 감싼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 보자기로 감싼 것과 같은 시각적 효과를 주는 문양은 중국에서 ‘포복문(包袱紋)’으로 불리며, 청대(淸代) 법랑자기(琺瑯瓷器)로 활발히 제작되었다. 현전하는 중국 자기와의 비교를 통해 청 관요(官窯)양식의 법랑자기로 이해된 바 있다. 또한 18세기 조선에 청 법랑자기가 황제의 회사품(回賜品)으로 조정에 유입된 사례를 보면 『[순조무자]진작의례』(1828) 도식의 화병이 법랑자기일 가능성

연구, 『미술사학』 No. 37,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19, 117-120쪽; 신승인, 앞의 논문, 2021, 20-55쪽; 박윤희, 「조선 말기 회화에 보이는 보자기 장식 화병의 연원과 의미」, 『고궁문화』 제9호, 국립고궁박물관, 2013, 46-73쪽; 송인희, 앞의 논문, 2021, 81-132쪽; 노지현, 「조선 후기 박취문의 도입과 왕실 내 사용 양상」, 『미술사학연구』 No. 318, 한국미술사학회, 2023, 103-133쪽.




이 적지 않다.²³⁾ 이러한 상황에서 의궤 도식과는 세부 특징이 다르게 묘사된 기물이 등장하는 연향도병을 검토함으로써 또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보자기문 화병은 『[순조무자]진작의궤』(1828), 『[고종임진]진찬의궤』(1892), 『[신축]진찬의궤』(1901), 『[신축]진연의궤』(1901), 『[임인사월]진연의궤』(1902) 도식에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신축진찬과 임인사월 진연이 동일하게 묘사된 연향의궤 도식[연향도·정재도·악기도]과 연향도병이 남아 있어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신축]진찬의궤』(1901) 도식의 헌천화병과 <경연당진찬도>에서 여령이 든 기물, 헌천화 도식에서 남성무동이 든 기물의 형태 및 특징은 모두 동일하다(표 9-1~2). 이와 같은 연향 그려진 《신축진찬도병(辛丑進饌圖屏)》(국립고궁박물관 소장)의 5월 13일 내진찬(3, 4쪽)이 묘사된 장면에서 헌천화병은 가요(哥窯)풍 백자에 흰 직물을 감싼 화병이 확인된다(표 9-3).²⁴⁾

『[신축]진찬의궤』(1901)와 동일한 『[임인사월]진연의궤』(1902)의 헌천화병과 정재도에 등장하는 화병 또한 모두 일치하는 가운데, 같은 행사인 11월 4일 외진연(外進宴)이 그려진 《임인진연도8폭병(壬寅進宴圖八幅屏)》(아모레퍼시픽미술관)에는 유리기처럼 보이는 녹색 호로병에 빨간색 직물을 감싼 것처럼 묘사되어 있다(표 9-5). 연향도병에 표현된 도자를 참고해 보면, 실제 연향에서 견부에 보자기를 두른 기물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나아가 연향도병과 연향의궤에서 동일한 행사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도자가 묘사된 점은, 도식과 연향도병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의궤 도식에 수록된 기물과 실제 연향에서 사용된 기물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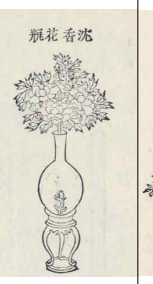

23) 김은경, 앞의 논문, 2019, 117-118쪽 참고.

24) 가요풍 자기에 대해서는 장남원, 「가요(哥窯) 자기에 대한 조선의 인식과 시각화」, 『미술사와 시각문화』, Vol. 28, 미술사와 시각문화학회, 2021, 114-143쪽 참조.

「신축진찬의례」(1901)		《신축진찬도병》 (1901), 국립고궁박물관	「임인사월진연의 례」 (1902)	《임인진연도팔폭 병》(1902), 아모레퍼시픽미술 관
헌천화병	<경연당진찬도>			
				
1	2	3	4	5

【표 9】 19~20세기 연향의례와 연향도병에 나타난 헌천화병

보자기문이 장식된 헌천화병과 마찬가지로 이용이 장식된 침향화병 또한 『순조무자]진작의례』(1828)에서 처음 등장한다. ‘화병’ 명칭으로 등장하는 이 기물은 순조 대 창작된 향약정제 중 하나인 침향춘에서 사용된 도구이다(표 10). 침향춘은 휘건을 올릴 때 행해진 정

악기도		정제도
「무자진작의례」 (1828)	「임진진찬의례」(1892)	「임진진찬의례」 (1892)
		

【표 10】 19~20세기 연향의례에 나타난 침향화병

제로 2명의 무용수가 침향화병[모란화병]의 모란꽃을 취하며 추는 춤이기에, 정제 장면을 묘사한 정제도에는 1쌍의 침향화병이 그려져 있다. 악기도·정제

도에 표현된 도자의 세부 특징은 동일하며, 동체에 하단에 이룡(虯龍)을 첩화 기법으로 장식한 장경병 형태로 묘사되어 있다. 『임진진찬의궤』(1892)에는 ‘침향화병’ 명칭으로 등장 한다. 이룡을 장식한 침향화병 또한 양식 분석을 통해 청 법랑자기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²⁵⁾ 한편 실제 기물의 사용 여부와는 별도로 현천화병과 침향화병은 순조대 연향의궤부터 고종대 연향의궤 도식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양식으로 반복적으로 수록되고 있어, 의궤 도식 내에서 관행적으로 차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악기도 「무자진작 의궤」 (1828)	경제도			
	「무자진작의궤」 (1828)	「임진진찬의궤」 (1892)	「신축진연의궤」 (1901)	「임인사월진연의 궤」 (1902)

【표 11】 19~20세기 연향의궤에 나타난 화당초문 모란화준 도식 비교

이와 같은 흐름은 연향의궤 도식에 나타난 모란화준의 유형과 장식에서도 확인된다. 연향의궤 도식의 ‘모란화준’은 특징에 따라 화당초문(花唐草紋), 수파용문(水波龍紋), 경부에 쌍이(雙耳)가 첩화된 기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도자들은 찬반을 올릴 때 모란꽃을 꺾은 화준을 두고 추어진 가인전목단에서 사용되었다. 화당초문 장식 모란화준은 동체 전면에 꽃과 넝쿨이 가득한








25) 이룡 장식 침향화병에 대한 내용은 김연수, 「조선후기 이룡(虯龍) 장식 공예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1, 98-100쪽 참고.

화당초문이 어우러져 묘사되어 있다. 형태는 외반된 구연이 점차 좁아지다가 전부에서 완만하게 벌어지며 동체 중앙에서 최대경을 이루고, 아래로 갈수록 다시 좁아지다가 저부 가까이에서 다시 벌어진 모습이다. 이 같은 모란화준 『순조무자진작의궤』(1828)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인데, 앞서 살펴본 침향준, 헌천화와 함께 가인전목단은 연경당 진작례에서 처음 공연되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정재를 선보이는 과정에서 앞 시기 전통적인 도자들과 다른 기종과 문양 양식이 차용된 도자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순조무자진작의궤』(1828) 악기도에는 모란화준이 정세히 표현된 것과 달리, 정재도에는 동체 중앙에 화문을 중심으로 덩굴이 뻗어나가는 문양으로 간략히 묘사되어 있다(표 11). 바깥으로 외반된 구연과 저부, 동체 중단에서 최대경을 이루는 ‘S’자형 굴곡의 형태적 특징은 악기도의 모란화준과 전반적으로 유사하다. 동일한 기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도식 제작 과정에서 정재 장면을 중점적으로 묘사하는 정재도 특성상 기물은 세세하게 표현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후에 간행된 『고종임진진찬의궤』(1892), 『[신축]진연의궤』(1901), 『[임인사월]진연의궤』(1902)에서도 동일한 양식의 모란화준은 악기도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정재도에서 소품으로만 간략하게 나타난다. 정재도에는 모두 동체 가운데 큰 화문을 중심에 두고, 넝쿨이 상하로 뻗어나가는 형태로 더욱더 간략하게 묘사되어 있다. 기형은 바깥으로 외반된 구연과 저부, 동체 중단에서 최대경을 이루는 점이 매우 유사하다. 문양 구성과 형태적 유사성을 종합해 볼 때, 적어도 가인전목단에서는 구연과 저부가 외반 되고, 동체에 화문을 시문한 화병이 지속적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²⁶⁾

26) 『순조무자진작의궤』 ‘모란화준’ 도식과 문양 등 세부묘사에서 차이가 있지만 구연과 저부가 외반되어 있고, 화문에 넝쿨가지가 뻗어나가는 형식의 문양이 유사한 병은 『헌종무신진찬의궤』에서 ‘준화’ 도식으로 등장한다. 이후 의궤 기록에서는 준화와 당채화준으로 악기풍물 기록에 등장하지만, 이 화준이 명확히 가인전목단 소입품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약기도	정제도					
	『기축진찬의 궤』 (1829)	『기축진찬의 궤』 (1829)	『임진진찬의 궤』 (1892)	『신축진찬의 궤』 (1901)	『신축진연의 궤』 (1901)	『임인사월진 연의궤』 (1902)
						

【표 12】 19~20세기 연향의궤에 나타난 수파용문 모란화준 도식 비교

수파용문이 장식된 입호 형태 모란화준은 『순조기축진찬의궤』(1829)에 처음 등장한다(표 12). 국내에서 제작된 용준은 주로 운룡문과 함께 시문되어 하늘을 나는 비룡(飛龍)을 표현한 것이다. 이에 반해 중국은 물에서 나오는 수룡(水龍)과 비룡이 공존하기에 문양 분석을 통해 중국풍 당화기로 이해된 바 있다.²⁷⁾ 이후 간행된 연향의궤에서는 정제도에만 등장한다.²⁸⁾ 정제도에서는 전체적으로 간략히 표현되어 있지만 동체 중앙의 용문과 하단의 수파문이 명확히 그려져 있어, 『순조기축진찬의궤』(1829)부터 등장하는 형태가 정제의 소품을 그릴 때 지속적으로 차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27) 신승인, 앞의 논문, 2012, 23쪽.

28) 수파용문이 장식된 모란화준이 가인전목단 정제도에 등장하는 사례로는 『임진진찬의궤』, 『신축진찬의궤』, 『신축진연의궤』, 『임인사월진연의궤』, 『임인십일월진연의궤』 등이다.

1	2	3
		
가인전목단 세부	정전 앞 배설된 화기 1쌍 세부	정전 앞 배설된 화기 1쌍 세부
<무신진찬도> 199.0x59.1cm, 국립중앙박물관		<무신진찬도병> 40.2x49.5cm, 국립중앙박물관

【표 13】 19~20세기 수파용문 청화백자가 묘사된 연향도병

한편, 연향의례 도식과 유사한 수파용문이 장식된 모란화준이 등장하는 연향도병으로 <무신진찬도>가 있지만, 동일한 행사를 기록한 『헌종무신]진찬의례』(1848)의 모란화준 도식과는 전혀 다른 양식으로 묘사되어 있다(표 13-1).²⁹⁾ 의례와 연향도병에 각각 다른 기물이 묘사되어 있어 실제 어떤 양식의 모란화준을 사용했는지 알 수 없지만, <무신진찬도> 내 가인전목단 장면에서 표현된 것과 동일한 수파용문이 장식된 화준이 정전 앞 화기로도 그려져 있다(표 13-2).³⁰⁾ 중국풍 수파용문이 장식된 청화백자를 화기로 사용

29) 《무신진찬도》 중 <통명전의일회작> 장면으로 보았다.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시대 궁중행사도 I』, 2010, 179쪽. 《무신진찬도병》(덕수 1663) 7쪽의 <통명전의일회회작도> 그림이 구성이 일치한 것을 비추어 <무신진찬도>의 모습은 통명전 의일회회작을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무신진찬도병》(덕수 1663)에 표현된 가인전목단 도자 기물의 묘사가 다르고, 병풍에 등장하는 헌선도와 가인전목단이 함께 선행된 것은 통명전 내진찬이므로 내진찬을 묘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0) 『헌종무신]진찬의례』 도식의 준화는 화당초, 박귀, 쌍희자(翬)문을 장식한 당화준으로 <무신진찬도>, 《무신진찬도병》(본관 12874)의 화기로 그려진 수파용문 화병과는 전혀 다른 양식의 도자가 나타난다. 『헌종무신]진찬의례』의 준화에 대해서는 송인희, 앞의 논문, 2021, 86-87쪽.

한 정황은 무신진찬을 묘사한 또 다른 작품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무신진찬도병(戊申進饌圖屏)》(본관 12874)에서도 관찰된다(표 13-3). 무신진찬을 그린 연향도병과 1828년, 1829년, 1848년의 연향의궤 약기도·정제도에 묘사된 모란화준을 종합해 보면, 도식에 등장하는 기물 이외에도 여러 형태의 모란화준이 병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표 14】 모란화준 도식과 청 법랑자기 비교

『[현종무신]진찬의궤』(1848) 도식에 처음 나타나는 모란화준을 살펴보면, 외반된 구연에서 경부로 갈수록 좁아지다, 견부에서 서서히 벌어지며, 동체 하단에서 좁아지다가 다시 벌어지는 형태이다. 장식 측면에서는 구연부터 견부에 이르기까지 화문과 박취문 등이 층층이 배치되어 있으며, 동체에서 하단에 이르기까지 촘촘히 여러 문양이 시문되어 있

다. 견부에는 쌍이가 첩화 기법으로 장식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매우 화려한 양식을 이룬다. 이 같은 양식의 모란화준 도식은 『[임인]진연의궤』(1902)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19~20세 연향의궤에 수록된 약기도와 정제도에서 가장 빈번하게 확인되는 유형으로 주목된다.³¹⁾ 이 기형은 투각 장식이 가해

31) 쌍이 장식이 있는 모란화준 도식이 등장하는 사례는 『[현종무신]진찬의궤』, 『[고종무신]진찬의궤』, 『[고종정축]진찬의궤』, 『[고종정해]진찬의궤』, 『[임진]진찬의궤』, 『[신축]진찬의궤』, 『[신축]진연의궤』, 『[임인사월]진연의궤』, 『[임인십일월]진연의궤』 등이다.

진 전형적인 건륭연간(乾隆年間, 1736~1795) 양채(洋彩) 양식의 법랑자기와 거의 일치하여 전심병(轉心瓶)으로 파악되어 왔다.³²⁾ 실제 유물의 대표적 사례로 도쿄국립박물관에 소장된 <분채투조당초문쌍이호(粉彩透彫唐草紋雙耳壺)>가 있다(표14).

1848년 무신진찬은 헌종 대 열린 처음이자 마지막 궁중 연향으로, 이 행사를 기록한 의례와 연향도병 여러 점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특히 채색이 가미된 연향도병에서 모란화준의 세부 특징이 다르게 묘사되어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모란화준이 사용된 가인전목단은 3월 17일 창경궁 통명전 내진찬, 3월 19일 회작, 3월 19일 야연에서 행해졌으며, 연향의례의 <통명전익일야연도>와 정재도, 악기도에서는 모두 동일하게 구연이 경부로 갈수록 좁아지다가 건부에서 서서히 벌어져 동체와 이어지고, 경부에 쌍이가 첩화된 형태로 등장한다.³³⁾ 《무신진찬도병》(덕수 1663)에는 동체에 쌍이가 첩화되고, 일부 채색이 가미된 도자로 표현되었으며, 《무신년진찬도병》(본관 13243)에서는 문양은 명확하지 않으나 청화백자 쌍이병으로 묘사되었다(표 15).³⁴⁾

32) 김은경, 「朝鮮後期 清代 瑤瑯瓷器 受容 研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132쪽 인용; 전심병은 건륭시기에 제작된 양채에서만 확인되는 것이기에 도식에 등장하는 모란화준의 제작 시기를 18세기 중반인 건륭연간 이후로 상정할 수 있다. 김은경, 앞의 논문, 2019, 121-122쪽.

33) 가인전목단 설행에 관한 내용은 한영우, 『儀軌, 朝鮮王室文化史』, 민속원, 2020, 480쪽.

34) 《궁중의식도판곡병(宮中儀式圖八曲屏)》(국립중앙박물관 소장)과 《무신진찬도병》(LA카운티미술관 소장)의 모란화준은 뚜렷이 보이지 않아 단정하기 어렵다. 일부 채색이 가미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청화백자로 추정되는 모란화준이 묘사되어 있다.

《무신진찬도병》 (1848)	《무신년진찬도 병》(1848)	《정해진찬도병》 (1887)	《신축진찬도병》 (1901)	《임인진연도병》 (1902)
				
136.1x47.6cm, 국립중앙박물관	141.5x49.5cm, 국립중앙박물관	147.1x47.9cm 국립중앙박물관	183.0x100.0cm 국립고궁박물관	국립국악원

【표 15】 19~20세기 연향도병에 나타난 모란화준 비교

동일하게 경부에 쌍이가 장식된 모란화준은 다른 시기에 제작된 《신축진찬도병》, 《임인진연도병(壬寅進宴圖屏)》 등에서도 확인되는데, 모두 청화백자로 그려져 있다.³⁵⁾ 연향도병과 연향의궤 도식 간의 불일치는 도식이 청의 범랑자기를 모본으로 제작되었으나 실제 연향에서는 상황에 따라 상이한 종류의 도자를 사용했을 가능성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또한, 모란화준이 연향의궤 내에서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확인된다. 『[신축]진연의궤』(1901)의 외진연 가인전목단에서는 동체 중심에 화문이 장식된 모란화준이 묘사되어 있다. 반면 내진연 가인전목단 도식에는 수파용문 장식의 화준이

35)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무신진찬도병>(터수 1663)은 통명전 진찬도, 야진찬도, 익일회작도에서 서양화법이 적용된 작품이다. 19세기 궁중연향도의 특징인 선원근법, 명암법, 부감법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내명부 중심 잔치가 외부와 단절된 공간으로 구성된 첫 사례다. 전체적으로 밝고 선명한 색채를 사용했고, 인물과 발, 휘장 등을 사진처럼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이 특징이다. 안태욱, 『궁중연향도의 탄생 : 조선 후기 연향 기록화와 양식에 대한 미술사적 연구』, 민속원, 2014, 199-203쪽 인용.

그려져 있으며, 악기도에서는 쌍이 장식 모란화준이 등장해 도식 간 불일치가 나타난다.³⁶⁾ 『신축진연의궤』(1901)는 외진연·내진연·야진연·회작연·야연 등을 한데 엮은 것으로 내용이 생략되거나 축약된 부분이 있어 실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연향에서 가인전목단이 행해질 때마다 여러 종류의 화준을 교차해 사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같이 다양한 종류의 화병을 교차해 사용했다면, 『헌종무신진찬의궤』(1848)의 악기풍물(樂器風物) 가인전목단 소입 물목 가운데, ‘내하(內下)’된 ‘당채화사병(唐彩畫砂瓶) 1좌’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하다. 첫 번째, 내하품이라면 청 황실에서 하사받은 채색채자기 및 법랑자기일 가능성이 있다. 채색이 가미된 모란화준은 《무신진찬도병》(덕수 1663)에서 확인되기에 『헌종무신진찬의궤』(1848)와 같은 기록이 있는 고종 대 무진진찬까지는 동일 기물이 소용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1848년에 투각과 쌍이 장식이 있는 법랑자기가 처음 가인전목단에서 사용되었고, 정례적 도식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³⁷⁾ 두 번째, 만약 이 기물들이 대부분의 연향도병에서 묘사된 것과 같은 청화백자라면 ‘당채화사병’이 청화백자를 지칭하는 용어일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당채화(唐彩畫)’는 다시 중국산 청화백자와 조선산 청화백자로 나눌 수 있다. 만약 조선에서 만들어진 청화백자라면, 중국에서 수입한 안료로 제작한 기물 또는 중국의 도안과 기형을 모본으로 제작한 분원의 청화백자가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³⁸⁾

36) 의궤 내 도식 불일치는 다른 의궤에서도 나타난다. 『신축진연의궤』, 『임인사월진연의궤』, 『임인십일월진연의궤』에서 모란화준 도식의 장식이 악기도와 정제도에서 다르게 표현된다. 연경당 진작례 이후 『순조무자진작의궤』에서 화당초문, 『기축진찬의궤』에서 수과용문, 『헌종무신진찬의궤』에서 쌍이 장식 화병이 각각 모란화준으로 등장한다. 세 가지 양식을 혼용했지만 헌종 대 이후 악기도에서는 쌍이 장식 화병을 전례대로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37) 『戊申進饌儀軌』 卷四, 樂器風物, “佳人剪牧丹所入…唐彩畫砂瓶一坐, 花柳跏坐具, 內下…”

38) ‘당채화’가 중국에서 수입된 안료로 시문한 것을 의미하는지, 채색이 가미된 중국

V. 맺음말

이상 연향의례 속 도자를 통해 궁중 연향에 소용된 도자의 종류, 구성, 변천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정리하면 대체로 고급품에 속하는 기종인 점, 성격은 같으나 양식이 다른 기물로 대체된 점, 특정 시기에 도자 사용이 확대된 점을 알 수 있었다. 크게 주기와 화기라는 두 가지 역할이 고정되었고, 이들은 연향에서 사용되는 도자의 구성으로 자리하였다. 도자 주기는 연향의 진작(進爵) 과정에서 술 향아리로 사용되었고, 이는 고종 때까지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1828년을 기점으로 신분에 따른 주기 사용이 세분되면서, 기물의 조형을 통한 시각적 질서 체제를 정립하게 되었다. 또한 화기는 기물의 배치가 전각의 중심으로 이동하는가 하면, 중국 도자의 수용을 통해 연향 내 도자 사용의 범위가 확장되었다. 따라서 진작과 정재에서 도자의 역할을 고려하면, 도식 속 도자가 연향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도식 속 도자를 통해 연향 목적, 또는 특정 시기에 나타난 변화 현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효명세자 대리청정 시기에 이루어진 궁중 연향의 정비, 고종 대 관습적으로 의궤를 제작했던 상황 등이 그것이다. 이 같은 시대적 상황은 도자 사용에 영향을 주었지만, 연향도병을 통해 구체적 모습을 알 수 있었다. 주목되는 점은 연향 내 도자 사용의 변화가 의궤 도식으로 반영되었으나, 기물의 구성과 용례에는 변화가 없었다는 점이다. 특히 연향 의궤 도식과 기록, 연향도병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은 의궤 제작의 관습적

자기를 지칭하는 것인지는 향후 다른 문헌과의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다만, 광해군과 순조 대 기록을 통해 ‘채(彩)’라는 글자가 도자 관련 기록에서 반드시 유상채(釉上彩) 자기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님을 생각해 볼 수 있다. 『光海君日記』 11년, 4월 17일 回回靑質來事. 傳曰: “此彩色, 命下累年, 無意質來矣, 而李弘虬盡心質來, 極爲可嘉, 參酌施賞”; 『純祖實錄』 32卷, 純祖 32年 9月 15日 “…而器皿不用彩花甲燻, 用分院常器, 以爲隨事惜福之道.”

관행을 뜻할 뿐 아니라, 기물 사용의 전례가 계승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일례로 고종 대 일부 연향의례 도식에서 화기용 용준을 제시하지만, 기록과 연향도병에는 당화준이 확인된다. 당시 설행된 연향은 왕실의 전통적 계승을 통한 왕권 강화라는 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의례와 연향도병 제작에 영향을 미쳤고, 특히 의례 제작의 경우 전통적 관행의 연장선에서 일어난 오류도 여겨진다. 하지만 의례는 전통적 관행으로 제작, 연향도병은 선택적 계승이라는 현상이 고종의 의도로 이분화된 것인지는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기물의 실제 사용과 도식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기록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의주를 참고하지 않은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의례가 한 시대의 패러다임을 담아낸 것을 감안하면, 연향용 도자의 구성과 사용 체제는 하나의 궤범으로 정리되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도식으로 정례화된 도자는 그 자체로써 하나의 프로토콜을 구축하였고, 이는 조선 왕실의 전통 아래 대한 제국기까지 지속되었다.

참고문헌

사료

- 『[高宗戊辰]進饌儀軌』
『[高宗壬辰]進饌儀軌』
『[高宗丁丑]進饌儀軌』
『[高宗丁亥]進饌儀軌』
『[純祖己丑]進饌儀軌』
『[純祖戊子]進爵儀軌』
『[辛丑]進宴儀軌』
『[辛丑]進饌儀軌』
『[壬寅四月]進宴儀軌』
『[壬寅十一月]進宴儀軌』
『[憲宗戊申]進饌儀軌』
『樂學軌範』
『園幸乙卯整理儀軌』
『慈慶殿進爵整禮儀軌』
『光海君日記』
『純祖實錄』

단행본

- 국립고궁박물관, 『조선 궁중의 잔치, 연향』, 글항아리, 2013.
_____, 『왕실문화도감-궁중악무』, 2014.
_____, 『문예군주를 꿈꾼 왕세자, 효명』, 2019.
김중수, 『조선시대 궁중연향과 여악연구』, 민속원, 2001.
안태욱, 『궁중연향도의 탄생 : 조선후기 연향 기록화와 양식에 대한 미술사적 연구』, 민속원, 2014.
이의강, 『(국역)순조무자진작의궤』, 보고서, 2006.
한국학중앙연구원, 『조선후기 궁중연향문화 2』, 민속원, 2005.

- 한영우, 『儀軌, 朝鮮王室文化史』, 민속원, 2020.
- 박정혜, 『조선시대 궁중기록화, 옛 그림에 담긴 조선 왕실의 특별한 순간들』, 혜화1117, 2024.
- 서한석 역주, 김중수 감수, 『역주 기사진표리진찬의궤』, 국립국악원, 2018.

논문

- 구혜인, 「조선후기 왕실 국혼(國婚)용 백자용준의 조형과 성격: 영국박물관 소장 ‘傳之于金氏子孫’명 백자운룡문호를 중심으로」, 『美術史學研究』 319, 한국미술사학회, 2023.
- _____, 「조선후기 왕실 연향용 주기(酒器)의 종류와 운용체계 -의궤의 기용도(器用圖)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40,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21.
- 김미경, 「19세기 조선백자에 보이는 청대 자기의 영향」, 『강좌미술사』 33,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09.
- 김선희, 「화성행궁華城行宮 소장 기물器物과 비품備品 연구」, 『古宮文化』 8, 국립고궁박물관, 2015.
- 김연수, 「조선후기 이룡(虯龍) 장식 공예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1.
- 김은경, 「朝鮮後期 清代 瑤瑯瓷器 受容 研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 _____, 「朝鮮의 淸 瑤瑯瓷器 유입경로와 수용태도 연구」, 『미술사학』 37,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19.
- 김정임,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의궤 도식 목판」, 『고궁문화』 2, 국립고궁박물관, 2008.
- 노지현, 「조선 후기 박쥐문의 도입과 왕실 내 사용 양상」, 『미술사학연구』 318, 한국미술사학회, 2023.
- 박윤희, 「조선 말기 회화에 보이는 보자기 장식 화병의 연원과 의미」, 『古宮文化』 6, 국립고궁박물관, 2013.
- 송인희, 「1848년 진찬의궤의 당화준(唐畫樽) 사용의 의의」, 『한국문화연구』 40,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21.

- 신승인, 「朝鮮後期 王室 宴享用 花樽 研究 : 酒樽과의 比較를 中心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서예진, 「高宗代(1863-1907) 宮中宴享圖屏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 유재빈, 「『園幸乙卯整理儀軌』 圖式, 그림으로 전하는 효과와 전략」, 『규장각』 5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8.
- 이이름, 「대한제국 궁중연향의 진작 기물 연구」, 『장서각』 48, 한국학중앙연구원, 2022.
- 장남원, 「가요(哥窯) 자기에 대한 조선의 인식과 시각화」, 『미술사와 시각문화』 28, 미술사와 시각문화학회, 2021.
- 정희정, 「조선후기 의궤도설과 기록화를 통해서 본 연향 연구 : 음식상 배설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부록 1] 19~20세기 궁중 연향의례(도식이 없는 것은 * 표시)39)

연번	서명/연도	동기	연번	서명/연도	동기
1	*豊呈都監儀軌 (1630)	인목대비 47세 경축	11	[高宗戊辰]進饌儀軌 (1868)	대왕대비 신정왕후 조씨 환갑 기념
2	*[肅宗己亥]進宴儀軌 (1719)	숙종 耆老所 入所	12	*[高宗癸酉]進爵儀軌 (1873)	신정왕후 대비 책봉 40주년 기념
3	*[英祖甲子]進宴儀軌 (1744)	영조 耆老所 入所, 대왕대비 인원왕후 축원	13	[高宗丁丑]進饌儀軌 (1877)	대왕대비 신정왕후 칠순 기념
4	*受爵儀軌 (1765)	영조 71세, 즉위 40년 기념	14	[高宗丁亥]進饌儀軌 (1887)	대왕대비 신정왕후 조씨 팔순 기념
5	園幸乙卯整理儀軌 (1795)	현릉원 행행, 혜경궁 홍씨 환갑	15	[高宗壬辰]進饌儀軌 (1892)	고종 즉위 30년, 보령 41세(望五) 기념
6	己巳進表裏進饌儀軌 (1809)	혜경궁 홍씨 관례 周甲 기념	16	[辛丑]進饌儀軌 (1901)	명헌대후 홍씨(헌종계 비) 보령 71세(望八) 기념

39) [부록]은 정희정, 「조선후기 의궤도설과 기록화를 통해 본 연향 연구 : 음식상 배설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35-38쪽의 <표 4. 예연 의궤의 주요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7	慈慶殿進爵整禮儀軌 (1827)	왕세자 효명세자가 순조, 순원왕후 존호 올린 일을 기념	17	[辛丑]進宴儀軌 (1901)	고종 보령 50세 기념
8	[純祖戊子]進爵儀軌 (1828)	순조비 순원왕후 40세 및 탄신일 기념	18	[壬寅四月]進宴儀軌 (1902)	고종 耆老所 入所 기념
9	[純祖己丑]進饌儀軌 (1829)	순조 성수 40년, 등극 30년 기념	19	[壬寅十一月]進宴儀軌 (1902)	고종 51세 (望六旬), 즉위 40주년 기념
10	[憲宗戊申]進饌儀軌 (1848)	대왕대비 순원왕후 김씨 육순과 대왕대비 41세(望五) 기념			

[부록 2] 19~20세기 궁중 연향의례 도자 종류와 수급 현황
(▲ 수량 파악 불가/ ◎ 도식 없음/ □ 사용처 불분명)

서명(연도)	사용처	종류 및 용도		수급
園幸乙卯整理儀軌 (1795)	윤2/13 화성 봉수당 진찬연	花器	龍樽(2)	司饗院
		酒器	▲白瓷樽, ▲酒樽	
		呈才	-	
己巳進表裏進饌儀軌 (1809)	2/27 창경궁 경춘전 진찬연	花器	龍樽(2)	內下
		酒器	惠慶宮 壽酒亭(1) - 酒樽(2) 王大妃殿 酒亭(1) - 酒樽(1) 大殿 酒亭(1) - 酒樽(1) 中宮殿 酒亭(1) - 酒樽(1) 左右命婦 酒卓(2) - 酒樽(2) 儀賓·威臣 酒卓(2) - 酒樽(2) ▲各 磁瓶	內下
		呈才	-	
慈慶殿進爵整禮儀軌 (1827)	9/10 창경궁 자경전 진작연	花器	龍樽(2)	廚院
		酒器	大殿 壽酒亭(1) - 龍樽(1) 中宮殿 壽酒亭(1) - 龍樽(1) 世子宮 酒亭(1) - 龍(1) 世子嬪宮 酒亭(1) - 龍樽(1) 公主 酒卓(1) - 沙樽(1) 左右命婦 酒卓(1) - 沙樽(1) 宗親儀賓威臣 酒卓(1) - 沙樽(1), 沙瓶(2)	廚院
		呈才	-	
[純祖戊子]進爵儀軌 (1828)	2/12 창경궁 자경전 진작연	花器	-	

		酒器	御座 壽酒亭(1) - 龍樽蓋具(1) 王世子侍座 酒亭(1) - 龍樽蓋具(1) 王世子嬪侍座 酒亭(1) - 龍樽蓋具(1) 公主侍宴位 酒卓(1) - 砂樽蓋具(1) 內賓侍宴位 酒卓(1) - 砂樽蓋具(1) 外賓參宴位 酒卓(1) - 砂樽蓋具(1)	廚院
		呈才	-	
		花器	-	
	2/12 창경궁 자경전 야진연	酒器	御座 壽酒亭(1) - 龍樽蓋具(1) 王世子侍座 酒亭(1) - 龍樽蓋具(1)	廚院
		呈才	-	
		花器	-	
	2/13 창경궁 자경전 왕세자 회작	酒器	睿座 酒亭(1) - 龍樽蓋具(1) 公主陪宴位 酒卓(1) - 砂樽蓋具(1) 命婦陪宴位 酒卓(1) - 砂樽蓋具(1)	廚院
		呈才	-	
		花器	-	
	6/1 창덕궁 연경당 진작	酒器	-	
呈才		▲獻天花瓶 靑錄粉紅瓶(2), 蓮花瓶(6), 牧丹花樽(1)		
花器		-		
[純祖己丑]進饌儀軌 (1829)	2/9 창경궁 명정전 외진찬	酒器	御座 壽酒亭(1) - 龍樽蓋具(1) 王世子侍座 酒亭(1) - 龍樽蓋具(1) 宰臣參宴位 酒卓(2) - 砂樽(2) 侍臣參宴位 酒卓(2) - 砂樽(2) 諸臣參宴位 酒卓(2) - 砂樽(2) 百官宣醴位 酒卓(2) - 砂樽(2)	廚院
		花器	-	

19-20세기 왕실 연향의례 도식의 도자 구성과 특징

		呈才	-	
	2/12 창경궁 자경전 내진찬	花器	花樽 龍樽蓋具 (2)	廚院
		酒器	御座 壽酒亭(1) - 龍樽蓋具(1) 王世子侍座 酒亭(1) - 龍樽蓋具(1) 王世子嬪侍座 酒亭(1) - 龍樽蓋具(1) 左右命婦侍宴位 酒卓(1) - 沙樽蓋具(1) 宗親儀賓威臣侍宴位 酒卓(1) - 沙樽蓋具(1)	廚院
		呈才	-	
	2/12 창경궁 자경전 야진찬	花器	花樽 龍樽蓋具(2)	
		酒器	御座 壽酒亭(1) - ▲龍樽蓋具 王世子侍座 酒亭(1) - *龍樽蓋具	
		呈才	-	
	2/13 창경궁 자경전 왕세자 회작	花器	花樽 龍樽蓋具(2)	
		酒器	睿座 酒亭(1) - ▲龍樽蓋具 命婦陪宴位 酒卓(1) - ▲沙樽蓋具 諸臣參宴位 酒卓(1) - ▲沙樽蓋具	
		呈才	-	
	6/19 창경궁 자경전 내진찬	花器	-	
酒器		御座 壽酒亭(1) - 龍樽蓋臺具(1) 御座 酒卓(1) - 壽福字樽蓋具(1) 王世子侍座 酒亭(1) - ▲龍樽蓋臺具(1)	壽福字 樽蓋具 內下	
呈才		▲牧丹花樽		
[憲宗戊申]進饌儀軌 (1848)	3/17 창경궁 통명전 내진찬	花器	唐畫樽(2)	內下
		酒器	御座 壽酒亭(1) - 龍樽蓋具(2) 大殿侍座 酒亭(1) - 龍樽蓋具(1) 中宮殿侍座 酒亭(1) - 龍樽蓋具(1) 順和宮侍座 酒亭(1) - 龍樽蓋具(1) 左右命婦侍宴位 酒卓(1) - ◎砂樽蓋具(2) 宗親儀賓威臣侍宴位 酒卓(1) - ◎砂樽蓋具(1) 進饌所堂上郎廳參宴位 酒卓(1) - ◎砂樽蓋具(1)	廚房 廚院

		呈才	牧丹花樽	
	3/17 창경궁 통명전 야진찬	花器	樽花(2)	
		酒器	御座 壽酒亭(1) - ▲龍樽蓋具 大殿侍座 酒亭(1) - ▲龍樽蓋具	
		呈才	-	
	3/19 창경궁 통명전 회작	花器	樽花(2)	
		酒器	御座 壽酒亭(1) - ▲龍樽蓋具 命婦侍宴位 酒亭(1) - ◎砂樽蓋具(1) 進饌所堂上郎廳參宴位 酒卓(1) - ▲◎砂樽蓋具	
		呈才	-	
	3/19 창경궁 통명전 야연	花器	樽花(2)	
		酒器	御座 酒亭(1) - ▲龍樽蓋具 進饌所堂上郎廳參宴位 酒亭(1) - ▲◎砂樽蓋具	
		呈才	-	
[高宗戊辰]進饌儀軌 (1868)	12/6 경복궁 강녕전 내진찬	花器	唐畫樽(2)	草樂院
		酒器	御座 壽酒亭(1) - 龍樽蓋具(1) 大殿侍座 酒亭(1) - 龍樽蓋具(1) 中宮殿侍座 酒亭(1) - 龍樽蓋具(1) 大院君侍座 酒卓(1) - 龍樽蓋具(1) 府大夫人侍座 酒卓(1) - 龍樽蓋具(1) 左右命婦侍宴位 酒卓(2) - ◎砂樽蓋具(2) 宗親儀賓戚臣侍宴位 酒卓(1) - ◎砂樽蓋具(1)	廚院

19-20세기 왕실 연향의례 도식의 도자 구성과 특징

		呈才	□牧丹花樽	
	12/6 경복궁 강녕전 야연	花器	樽花(2)	
		酒器	御座 壽酒亭(1) - ▲龍樽蓋具 大殿侍座 酒亭(1) - ▲龍樽蓋具	
		呈才	-	
	12/11 경복궁 강녕전 대전회 작	花器	樽花(2)	
		酒器	御座 酒亭(1) - ▲龍樽蓋具 命婦侍宴位 酒卓(1) - ◎砂樽蓋具(1) 宗親儀賓威臣侍宴位 酒卓(1) - ▲◎砂樽蓋具	
		呈才	-	
	12/11 경복궁 강녕전 야연	花器	樽花(2)	
		酒器	御座 酒亭(1) - *龍樽蓋具 宗親儀賓威臣侍宴位 酒卓(1) - ◎砂樽蓋具	
呈才		-		
[高宗丁丑]進饌儀軌 (1877)	12/6 창경궁 동명전 내진찬	花器	唐畫樽(2)	內下
		酒器	御座 壽酒亭(1) - 龍樽蓋具(1) 大殿侍座 酒亭(1) - 龍樽蓋具(1) 中宮殿侍座 酒亭(1) - 龍樽蓋具(1) 王世子侍座 酒亭(1) - 龍樽蓋具(1) 左右命婦侍宴位 酒卓(2) - ◎砂樽蓋具(2) 宗親儀賓威臣侍宴位 酒卓(1) - ▲◎砂樽蓋具(2) 進饌所堂上郎廳參宴位 酒卓(1) - ▲◎砂樽蓋具	廚院
		呈才	□牧丹花樽	
	12/6 창경궁 동명전 야진찬	花器	樽花(2)	
		酒器	御座 壽酒亭(1) - ▲龍樽蓋具 大殿侍座 酒亭(1) - ▲龍樽蓋具	

		呈才	-	
	12/10 창경궁 동명전 대전회 작	花器	樽花(2)	
		酒器	御座 酒亭(1) - ▲龍樽蓋具 命婦侍宴位 酒卓(1) - ◎砂樽蓋具(1) 進饌所堂上郎廳參宴位 酒卓(1) - ▲◎砂樽蓋具	
		呈才	佳人剪牧丹	
	12/10 창경궁 동명전 야진찬	花器	樽花(2)	
		酒器	御座 酒亭(1) - ▲龍樽蓋具 進饌所堂上郎廳參宴位 酒亭(1) - ▲◎砂樽蓋具	
		呈才	-	
[高宗丁亥]進饌儀軌 (1887)	1/27 경복궁 만경전 내진찬	花器	唐畫樽(2)	內下
		酒器	御座 壽酒亭(1) - 龍樽蓋具(1) 大殿侍座 酒亭(1) - 龍樽蓋具(1) 中宮殿侍座 酒亭(1) - 龍樽蓋具(1) 王世子侍座 酒亭(1) - 龍樽蓋具(1) 王世子嬪侍座 酒亭(1) - 龍樽蓋具(1) 左右命婦侍宴位 酒卓(2) - ◎砂樽蓋具(2) 宗親儀賓戚臣侍宴位 酒卓(1) - ◎砂樽蓋具(1) 進饌所堂上郎廳參宴位 酒卓(1) - ◎砂樽蓋具(1)	廚院
		呈才	□牧丹花樽	
	1/27 경복궁 만경전 야진찬	花器	樽花(2)	
		酒器	御座 壽酒亭(1) - ▲龍樽蓋具 大殿侍座 酒亭(1) - ▲龍樽蓋具 王世子侍座 酒亭(1) - ▲龍樽蓋具	
		呈才	-	

19-20세기 왕실 연향의례 도식의 도자 구성과 특징

	1/28 경복궁 만경전 대전회 작	花器	-	
		酒器	御座 酒亭(1) - ▲龍樽蓋具 命婦侍宴位 酒卓(1) - ▲◎砂樽蓋具 進饌所堂上郎廳參宴位 酒卓(1) - ▲◎砂樽蓋具	
		呈才	-	
	1/28 경복궁 만경전 대전아 연	花器	-	
		酒器	御座 酒亭(1) - ▲龍樽蓋具 進饌所堂上郎廳參宴位 酒亭(1) - ▲◎砂樽蓋具	
		呈才	-	
	1/29 경복궁 만경전 왕세자 회작	花器	樽花(2)	
		酒器	睿座 酒亭(1) - ▲龍樽蓋具 命婦陪宴位 酒卓(1) - ◎砂樽蓋具(1) 進饌所堂上郎廳參宴位 酒卓(1) - ▲◎砂樽蓋具	
		呈才	-	
	1/29 경복궁 만경전 아연	花器	-	
		酒器	睿座 酒亭(1) - ▲龍樽蓋具 進饌所堂上郎廳參宴位 酒亭(1) - ▲◎砂樽蓋具	
		呈才	-	
[高宗壬辰]進饌儀軌 (1892)	9/24 경복궁 근정전 외진찬	花器	唐畫樽(2)	內下
		酒器	御座 壽酒亭(1) - 龍樽蓋具(1) 王世子侍座 酒卓(1) - 龍樽蓋具(1) 宰臣參宴位 酒卓(2) - ◎砂樽蓋具(2) 侍臣參宴位 酒卓(2) - ◎砂樽蓋具(2) 諸臣參宴位 酒卓(2) - ◎砂樽蓋具(2) 百官宣醴位 酒卓(2) - ◎砂樽蓋具(2)	廚院
		呈才	-	

	9/25 경복궁 강령전 내진찬	花器	唐畫樽(2)	內下
		酒器	御座 壽酒亭(1) - 龍樽蓋具(1) 寶座 壽酒亭(1) - 龍樽蓋具(1) 王世子侍座 酒亭(1) - 龍樽蓋具(1) 王世子嬪侍座 酒亭(1) - 龍樽蓋具(1) 左右命婦侍宴位 酒卓(2) - ◎砂樽蓋具(2) 王子宗親戚臣侍宴位 酒卓(1) - ◎砂樽蓋具(1) 進饌所堂上郎廳參宴位 酒卓(1) - ◎砂樽蓋具(1)	廚院
		呈才	□牧丹花樽	
	9/25 경복궁 강령전 야진찬	花器	樽花(2)	
		酒器	御座 壽酒亭(1) - ▲龍樽蓋具 寶座 酒亭(1) - ▲龍樽蓋具 王世子侍座 酒亭(1) - ▲龍樽蓋具	
		呈才	-	
	9/26 경복궁 강령전 왕세자 회작	花器	樽花(2)	
		酒器	睿座 酒亭(1) - ▲龍樽蓋具 命婦陪宴位 酒卓(1) - ▲◎砂樽蓋具 進饌所堂上郎廳參宴位 酒卓(1) - ▲◎砂樽蓋具	
		呈才	-	
	9/26 경복궁 강령전 야연	花器	樽花(2)	
		酒器	睿座 酒亭(1) - ▲龍樽蓋具 進饌所堂上郎廳參宴位 酒卓(1) - ▲◎砂樽蓋具	
		呈才	-	
[辛丑]進饌儀軌 (1901)	5/13 경운궁 경운당 내진찬	花器	唐畫樽(2)	內下
		酒器	明憲太后寶座 壽酒亭(1) - 龍樽蓋具(1) 大殿侍座 酒亭(1) - 龍樽蓋具(1) 皇太子侍座 酒亭(1) - 龍樽蓋具(1) 皇太子妃侍座 酒亭(1) - 龍樽蓋具(1) 郡夫人左右命婦侍宴位 酒卓(2) - ◎砂樽蓋具(2)	典膳司

19-20세기 왕실 연향의례 도식의 도자 구성과 특징

		宗親威臣侍宴位 酒卓(1) - ◎砂樽蓋具(1)	
	呈才	□牧丹花樽	
5/13 경운궁 경운당 야진찬	花器	樽花(2)	
	酒器	明憲太后寶座 壽酒亭(1) - ▲龍樽蓋具 大殿侍座 酒亭(1) - ▲龍樽蓋具 皇太子侍座 酒亭(1) - ▲龍樽蓋具	
	呈才	-	
5/16 경운궁 경운당 대전회 작	花器	樽花(2)	
	酒器	御座 酒亭(1) - ▲龍樽蓋具 命婦侍宴位 酒卓(1) - ▲◎砂樽蓋具 進饌所堂上郎廳參宴位 酒卓(1) - ▲◎砂樽蓋具	
	呈才	-	
5/16 경운궁 경운당 야연	花器	樽花(2)	
	酒器	御座 酒亭(1) - ▲龍樽蓋具 進饌所堂上郎廳參宴位 酒亭(1) - ▲◎砂樽蓋具	
	呈才	-	
5/18 경운궁 경운당 황태자 회작	花器	樽花(2)	
	酒器	睿座 酒亭(1) - ▲龍樽蓋具 命婦陪宴位 酒亭(1) - 龍樽蓋具(1) 進饌所堂上郎廳參宴位 酒卓(1) - ▲◎砂樽蓋具	
	呈才	-	
5/18 경운궁 경운당 야연	花器	樽花(2)	
	酒器	睿座 酒亭(1) - ▲龍樽蓋具 進饌所堂上郎廳參宴位 酒亭(1) - ▲◎砂樽蓋具	

		呈才	-	
[辛丑]進宴儀軌 (1901)	7/26 경운궁 함녕전 외진찬	花器	唐畫樽(2)	內下
		酒器	御座 壽酒亭(1) - 龍樽蓋具(1) 皇太子侍座 酒亭(1) - 龍樽蓋具(1) 宰臣進爵位 酒卓(2) - ◎砂樽(2) 侍臣參宴位 酒卓(2) - ◎砂樽(2) 諸臣參宴位 酒卓(2) - ◎砂樽(2) 百官宣醜位 酒卓(2) - ◎砂樽(2)	典膳司
		呈才	-	
	7/27 경운궁 함녕전 내진찬	花器	唐畫樽(2)	內下
		酒器	御座 壽酒亭(1) - 기록 없음 皇太子侍座 酒亭(1) - 龍樽蓋具(1) 皇太子妃侍座 酒亭(1) - 龍樽蓋具(1) 英親王侍宴位 酒卓(1) - ◎砂樽蓋具(1) 郡夫人左右命婦侍宴位 酒卓(2) - ◎砂樽蓋具(2) 宗親戚臣侍宴位 酒卓(1) - ◎砂樽蓋具(1) 進宴廳堂上郎廳參宴位 酒卓(1) - ◎砂樽蓋具(1)	典膳司
		呈才	□牧丹花樽	
	7/27 경운궁 함녕전 야진찬	花器	樽花(2)	
		酒器	御座 壽酒亭(1) - 龍樽蓋臺具(1) 皇太子侍座 酒亭(1) - ▲龍樽蓋臺具	
		呈才	-	
	7/29 경운궁 함녕전 황태자 회작	花器	樽花(2)	
		酒器	睿座 酒亭(1) - ▲龍樽蓋臺具 命婦陪宴位 酒卓(1) - ▲◎砂樽蓋具 進宴廳堂上郎廳參宴位 酒卓(1) - ▲◎砂樽蓋具	

19-20세기 왕실 연향의례 도식의 도자 구성과 특징

		呈才	-	
	7/29 경운궁 함녕전 야연	花器	樽花(2)	
		酒器	睿座 酒亭(1) - 기록 없음 進宴廳堂上郎廳參宴位 酒亭(1) - ▲◎砂樽蓋具	
		呈才	-	
『[壬寅四月]進宴儀軌 (1902)	4/23 경운궁 함녕전 의진찬	花器	唐畫樽(2)	內下
		酒器	御座 壽酒亭(1) - 龍樽蓋具(1) 皇太子侍座 酒亭(1) - 龍樽蓋具(1) 宰臣參宴位 酒卓(2) - 砂樽(2) 侍臣參宴位 酒卓(2) - 砂樽(2) 諸臣參宴位 酒卓(2) - 砂樽(2)	典膳司
		呈才	-	
	4/24 경운궁 함녕전 내진찬	花器	唐畫樽(2)	內下
		酒器	御座 壽酒亭(1) - 기록 없음 皇太子侍座 酒亭(1) - 龍樽蓋具(1) 皇太子妃侍座 酒亭(1) - 龍樽蓋具(1) 英親王侍宴位 酒卓(1) - ◎砂樽蓋具(1) 郡夫人左右命婦侍宴位 酒卓(2) - ◎砂樽蓋具(2) 宗親戚臣侍宴位 酒卓(1) - ◎砂樽蓋具(1) 進宴廳堂上郎廳參宴位 酒卓(1) - ◎砂樽蓋具(1)	
		呈才	□牧丹花樽	
	4/24 경운궁 함녕전 야진찬	花器	樽花(2)	
		酒器	御座 壽酒亭(1) - ▲龍樽蓋具 皇太子侍座 酒亭(1) - ▲龍樽蓋具	
		呈才	-	
	4/25 경운궁 함녕전 황태자 회작	花器	樽花(2)	

[壬寅十一月] 進宴儀軌 (1902)		酒器	睿座 酒亭(1) - ▲龍樽蓋臺具 命婦陪宴位 酒卓(1) - ▲◎砂樽蓋臺具 進宴廳堂上郎廳參宴位 酒卓(1) - ▲◎砂樽蓋具	
		呈才	-	
		花器	樽花(2)	
	4/25 경운궁 함녕전 야연	酒器	睿座 酒亭(1) - 기록 없음 進宴廳堂上郎廳參宴位 酒卓(1) - ▲◎砂樽蓋具	
		呈才	-	
		花器	唐畫樽(2)	內下
	11/4 경운궁 중화전 외진연	酒器	御座 壽酒亭(1) - 龍樽蓋具(1) 皇太子侍座 酒亭(1) - 龍樽蓋具(1) 宰臣參宴位 酒卓(2) - 砂樽(2) 侍臣參宴位 酒卓(2) - ◎砂樽(2) 諸臣參宴位 酒卓(2) - ◎砂樽(2)	典膳司
		呈才	-	
		花器	唐畫樽(2)	內下
	11/8 경운궁 관명전 내진연	酒器	御座 壽酒亭(1) - 기록 없음 皇太子侍座 酒亭(1) - 龍樽蓋具(1) 皇太子妃侍座 酒亭(1) - 龍樽蓋具(1) 英親王侍宴位 酒卓(1) - ◎砂樽蓋具(1) 郡夫人左右命婦侍宴位 酒卓(2) - ◎砂樽蓋具(2) 宗親戚臣侍宴位 酒卓(1) - ◎砂樽蓋具(1) 進宴廳堂上郎廳參宴位 酒卓(1) - ◎砂樽蓋具(1)	典膳司
呈才		□牧丹花樽		
花器		樽花(2)		
11/8 경운궁 관명전 야진연	酒器	御座 壽酒亭(1) - ▲龍樽蓋臺具 皇太子侍座 酒亭(1) - ▲龍樽蓋具		

19-20세기 왕실 연향의례 도식의 도자 구성과 특징

11/9 경운궁 관명전 황태자 회작	문才	-	
	花器	樽花(2)	
	酒器	睿座 酒亭(1) - ▲龍樽蓋具 命婦陪宴位 酒卓(1) - ▲◎砂樽蓋臺具 進宴廳堂上郎廳參宴位 酒卓(1) - ▲◎砂樽蓋臺具	
	문才	-	
11/9 경운궁 관명전 야연	花器	樽花(2)	
	酒器	睿座 酒亭(1) - 기록 없음 進宴廳堂上郎廳參宴位 酒亭(1) - ▲◎砂樽蓋臺具	
	문才	-	

Abstract

THE COMPOSITION AND CHARACTERISTICS OF CERAMICS IN
THE DIAGRAMS(*Dosik*) OF ROYAL BANQUET UIGWE FROM
THE 19TH TO 20TH CENTURIES

SHIN HYEKYUNG (SHIN, HYE KYUNG),
PARK SOOJUNG (PARK, SOO JUNG)

This study analyzes the composition and characteristics of ceramics depicted in the diagrams (*dosik*) of royal banquet *uigwe* from the 19th to 20th centuries. Examining 13 banquet *uigwe* from the Wonhaeng Eulmyo Jeongni *Uigwe* (1795) to 1902, the research confirms that banquet ceramics were categorized into liquor vessels (*jugi*) and flower vases (*hwagi*), establishing a systematic usage protocol.

Liquor vessels became differentiated into *yongjun* (dragon jar) and *baekjajun* (white porcelain jar) from the Jagyeongjeon Jinjak Jeongnyeui *Uigwe* (1827), with hierarchical placement according to social status. Flower vases expanded in usage after 1828 with the introduction of Chinese-style *danghwajun* (Tang-painted jar). Notably, from the Heonjong Musin Jinchan *Uigwe* (1848), peony vases in the *jianxinping* style were adopted for court performances.

Discrepancies among diagrams, records, and banquet paintings reveal the coexistence of conventional practices and selective inheritance in *uigwe* production. King Gojong's banquets reflected dual purposes of traditional

succession and imperial authority reinforcement. The ceramics systematized in banquet uigwe diagrams were established as regulatory standards, persisting through the Korean Empire period under Joseon royal traditions, signifying the significant position of ceramics in royal banquets.

Key Words : Joseon Dynasty, Royal Banquet, Yeonhyang Uigwe (Royal Banquet Uigwe), Ceramics, Dosik (Diagram), Chinese Ceramics, Doseol (Illustrated Explanation), Hwajun (Flower Vase), Yongjun (Dragon Jar)